문화예술 68~107 01.11.1 10:17 AM 페이지88

한국 최초의 추상회화 대표작

김환기, <론도>, 캔버스에유채, 60.5×72.5 cm, 1938

서양화유입후정착단계인 1930년대한국미술에는일본유학생들을중심으로일본화단의신기운인후기인상파, 야수파, 추상회화등의영향을받은새로운감각의미술활동이벌어졌다. 특히일본의‘ 자유미술가협회 는추상회화를추구하던단체로여기에김환기, 유영국, 이규상, 문학수, 이중섭등이참가하였다. 그중김환기는 1937년협회창립때부터자유전에참가하였는데이시기의대표적인작품으로<론도>, 〈향〉, 〈창〉등이있다.

그는자연주의에서출발하여점진적으로추상화의과정으로이행하였는데, 기하학적이미지와자연적이미지의결합을통한추상화의과정을보여주었다. 이러한경향은이후그의작업의골간을이룬다. 그는해방후 1948년유영국, 이규상등과함께‘ 신사실파 를결성하여본격적인한국의추상회화혹은현대미술을대표하는작가로남게된다. <론도>는김환기의초기추상회화작품으로‘ 추상이라하더라도모든형태는사실 ’이라는의식을반영하여기하학적형태와구상적형태를결합한한국최초의추상회화대표작중하나이다.

글/ 김 찬 동 | 전시기획자 · 본원문학미술팀장